

개개의 특성이 빛나는 실 (9)

선랜드가 개발한 “골풀 면사”

골풀은 골풀과의 다년초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줄기로 돛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다다미(畳 : 속에 짚을 두껍게 넣은 일본식 돛자리)를 만드는 주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 나라의 한방에서는 등심초라 하여 이뇨제로 쓰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골풀이 유독한 일산화질소(nitrogen monoxide)로 바뀌기 쉬운 이산화질소(nitrogen dioxide)를 제거하는 힘이 있으며, 흡습성·방출성이 우수하여 습기가 높을 때에는 줄기의 스펀지와 같은 조그마한 기공으로 습기를 빨아들여 보관하다가, 건조하면 줄기 속에 저장하였던 수분을 방출하여 공기의 습도를 조정해 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다다미용 돛자리를 만들 때 생기는 부스러기를 알칼리로 감량 가공하여 섬유질만을 뽑아낸 다음, 섬유 뭉치를 섞어 퍼지게 함으로써 방적하기 좋은 상태를 섬유화한다.

일본의 선랜드사는 골풀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섬유화한 골풀로 실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골풀 면사”는 골풀 10%에 면 90%를 혼방하여 10수를 뽑아 타월이나 커튼, 카펫과 같은 인테리어 등에 사용되고 있다. “골풀 면사”는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산뜻한 촉감을 느끼게 해주는 청량감 소재로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는 버리게 된 다다미를 다시 섬유화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유익한 소재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 ♣